



존경하는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에 길을 내주기를 시샘하는 겨울 탓이지만 곧 따스한 별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날이 보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는 봄 골프대회, 여름 피크닉, 가을 골프대회, 가을 음악회와 연말 총회 및 파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모임과 가을 음악회 등 동창회가 후원하는 여러 문화 행사를 통해 동문 여러분과 갖이할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에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창회의 가장 큰 보람있는 사업은 형평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 장학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튼튼하게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진을 구성하는 동문님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사진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350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 주신다면 장학금 재원의 건정성은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약 8%의 동문님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과 편리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메일로 우리 동문들의 삶의 기록을 풍부하게 반영된 동창회 소식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소식을 편집인 이준수 부회장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충실한 내용의 소식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소식지는 시카고 동창회 website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45 대 임원진은 동창회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동문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기쁨이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동창회가 동문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곧 찾아올 화창한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동균 드림

구경회 선배님을 추모하며 - 구경회 선배님(의대 59 입)께서는 시카고 동창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셨고, 1999년에는 동창회 회장으로, 2014년에는 골든클럽 회장으로 봉사하시며 동창회를 무척 사랑하고 애기셨습니다. 또한 구경회 선배님께서 시카고 노인복지센터를 창설하신 (고) 김현규 선배님(Thomas Kim, 의대 47 졸, 창설자 및 초대 이사장)의 권유로, 1987년에 이광선 선배님(의대 59 입, 1995년 이사장), 김길중 선배님(의대 59 입, 1997년 이사장), 김윤태 선배님(의대 63 입) 등 의대 동문들과 여러 시카고 서울대 동문들과 함께 당시 "시카고 노인복지센터"(현 "한울복지센터", Hanul Family Alliance) 창설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구경회 선배님께서 오랜 세월 한울복지센터와 함께하시며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드님 David Koo 님께서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 한울복지센터를 적극 후원하고 봉사하시며 제 13대 이사장으로 섬기셨고, 현재도 든든한 후원자이자 자문이사회 일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경회 선배님의 권유로 한의일 선배님(공대 62 입, 2004년 이사장), 이영우 선배님(문리대 66 입), 박종희 동문(의대 69 입), 김용주 동문(공대 69 입) 등 여러 서울대 동문들께서도 시카고노인복지센터에 참여하시어 많은 봉사를 하시고 지금도 많은 동문들께서 한울종합복지관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글: 김호범 상 69, 사진: 소진문, 치 58)



제 27회 함춘대상 수상 영광을 안은 시카고의 **박종희 일리노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의 69)는 소아 알레르기 및 천식 분야의 임상과 교육 발전에 헌신하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특히 박 교수는 2004년 '세종문화회'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아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온 문화적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시카고 지역사회에서 의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박 동문의 이번 수상은 우리 동창회에 커다란 자부심과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박종희 동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처: 의학신문, 2026.3.18.)

2026 년 시카고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제 1 차 이사회 개최 성황



시카고의 긴 겨울
끝자락에서 알곳은 눈발이
검히고 기온이 28 도에서
39 도 사이를 오가며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지난 3 월 21 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삼버그
골프클럽 내 캔들러 बैंक
홀에는 관악의 푸른 기상을
가슴에 품은 선후배
동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6 년도 제 1 차 이사회는 단순한 정기 모임을 넘어 생성형 AI 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기술의 발전이 모든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 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을 재설정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황찬주 동문의 선창으로 울려 퍼진 교가 제창이었습니다. 관악 교정에서부터 이어져 온 자부심이 시카고의 하늘 아래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 장내에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어 윤봉수수석회장의 의사정족수 확인과 함께 힘찬 개회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회장의 소개로 단상에 모인 신임 임원진은 참석 이사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올 한 해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원진은 선배님들이 정성을 다해 다듬어 오신 회칙의 본질을 지키되 투명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사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인준을 마쳤습니다.

안건 토의 세션에서는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26 년부터 2028 년까지 3 년간 동창회의 신임 이사들에 대한 추천과 인준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봉윤식 총무는 연 2 회의 이사회와 골프대회를 포함한 연간 행사 계획을 월별로 상세히 발표하며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소통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재무 보고에서는 형준호 재무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한 예산안을 토대로 각 동아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확정하며 샤프한 재무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조직의 연속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대목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을 비롯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와 장학생선발위원회 그리고 차차기 회장 선발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선임되어 동창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가을에도 이소정 동문의 기획 아래 고품격 음악회와 제 2 차 이사회를 병행하기로 결의하며 문화적 품격이 흐르는 동창회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이사회는 우리 동창회의 가장 숭고한 목적인 장학사업 현황 보고와 산하기관 및 동아리 소개로 깊이를 더했습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장은 현재의 기금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골든클럽과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잇는 관악클럽 그리고 음악과 북클럽 및 수영 등 다양한 취미 동아리들의 활동 계획이 공유되며 동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안건 시간에는 세종문화회관의 경연대회 성황과 시카고 한인 문화원의 구심점 역할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동창회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폐회 동요와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삼버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참석한 동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관과 회칙이라는 굳건한 나침반을 바탕으로 AI 가 가져오는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는 지성을 선도하는 리더 그룹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거친 눈발 뒤에 반드시 찾아올 시카고의 찬란한 봄별처럼 선배님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이번 이사회는 우리 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진 소진문 치대 58)

골든클럽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1 시가 되면 골프 로드(Golf Road)에 위치한 '바베큐 가든'은 설렘 가득한 목소리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공식 프로그램은 11 시 30 분부터이지만, 보고 싶은 얼굴들을 한시라도 빨리 마주하려는 회원님들은 이미 11 시 전부터 자리를 채우시곤 합니다. 총 135 명의 회원 중 매달 70~80 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달간 쌓아온 삶의 담론을 나누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 동문들이 함께 엮어가는 소중한 '골든타임'입니다. 새로 오셨거나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신 회원님을 반갑게 소개하며 시작되는 순서는, 그달 생신을 맞이하신 회원님들을 앞으로 모셔 축하 노래와 정성 어린 선물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자원하신 회원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생활의 지혜나 깊이 있는 경험담을 발표하시며, 서로의 인생을 배우고 격려하는 지성적인 교류의 장을 완성합니다.



올해 골든클럽의 큰 행사인 **숏트립과 롱트립 계획**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5 월에는 '유니크루스' 사의 안내로 위스컨신 웨보이건(Sheboygan) 나들이를 떠납니다. 정원 제한 없이 모든 회원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더니, 기대 이상의 뜨거운 성원으로 인해 한 번에 이동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5 월 14 일과 21 일 양일로 나누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9 월 12 일부터 19 일까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보스턴으로 이어지는 7 박 8 일간의 롱트립 크루스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7 명의 회원이 등록을 마쳤으며, 비록 단풍이 절정에 이른 시기는 아닐지라도 역사적인 몬트리올과 퀘벡의 정취를 느끼고 작은 어촌 마을들을 거쳐 가는 멋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유니크루스의 민혜기 사장님께서 자비로 동행하며 세심한 안내를 도와주시기로 하여 더욱 든든한 여행이 기대됩니다. 기쁜 소식들 사이로 가슴 아픈 이별도 있었습니다. 골든클럽의 초창기부터 헌신적으로 클럽을 이끌어 오셨던 구경희 회원님께서 최근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고인께서 일구어 놓으신 이 소중한 유산을 기리며, 남아있는 우리는 그 뜻을 이어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선후배 동문과 배우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따뜻한 눈빛과 온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자산입니다. 황금기에 들어선 동문 여러분의 삶이 골든클럽 안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봄별처럼 포근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글: 전현일 농 62, 사진: 홍청일 약 57)

BREAKING NEWS 제35차 평의원 회의, 6월 26일~28일 미니애폴리스 개최

SNUAA USA Online Exchange

Connecting Alumni through Knowledge, Innovation, and Legacy

Monthly Zoom Series

5:00 PM PT / 8:00 PM ET

Platform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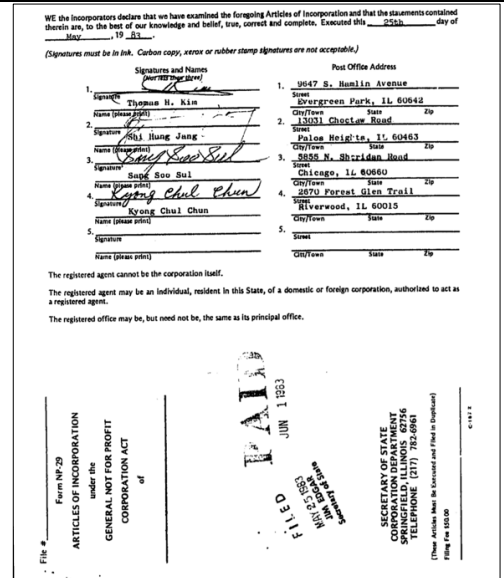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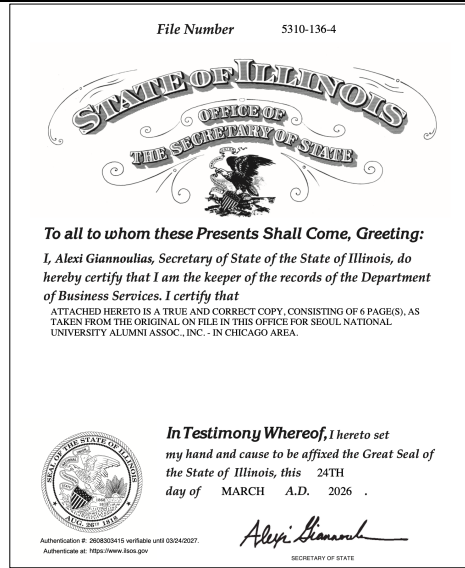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미주동창회, <https://snuaa.org/online-exchange/>)

서울대 미주동창회(SNUAA USA)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해 매달 다채로운 온라인 줌(Zoom) 미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최신 과학 기술의 비전부터 동문들의 감동적인 회고록에 이르기까지, SNUAA USA 가족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과 삶의 지혜를 자유롭게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도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선후배가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담론과 따뜻한 유대가 교차하는 이 온라인 광장에 시카고 동창회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법적 뿌리와 정통성: 1983 년 정관 사본 확보

동창회의 법적 모태이자 운영의
나침반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공식 인증 사본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사무총장 Alexi Giannoulis 의
직인이 찍힌 총 6 페이지 분량의 법적
기록으로, 1983 년 5 월 25 일, 당시
일리노이주 비영리 법인법에 따라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 Inc. - In Chicago
Area'라는 명칭으로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설립 당시 초대 이사회는 Thomas H. Kim(고 김현규 의대 47 졸, 제 2 대 회장), Shi Hung Jang, Sang Soo Sul, Kyong Chul Chun 등
4 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우리의 설립 목적은 관악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대학교 및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한미 양국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동창회 3 대 회장 문병훈(사 47 입)에 의하여 1984 년 8 월 30 일에 이루어진 정관 개정(Articles of
Amendment)이 제출되었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501(c)(3) 면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수익 분배 금지 조항과 정치적 캠페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 자산을 공익적 목적의 단체에
귀속시킨다는 해산 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출처: 서울대 미주동창회,
<https://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 제 35 차 평의원 총회가 오는 6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물 오브 아메리카 인근 캄브리아 호텔(Cambria Hotel)에서
개최됩니다. 미주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 년간의 사업 보고와 향후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에디슨상'을 수상한 젊은 동문 이진형 박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리를 빛낼 예정이며, 회의 일정 중에는 레이크 크루즈 투어 등
럭셔리하고 낭만적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동문 간의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주 전역의 평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창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성원이 기대됩니다.

2024 - 2026 선출 이사: 25 명

곽영로(수), 김선웅(공),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주(공), 김정주(문), 김준우(의), 김학수(공),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장열(공), 유기정(간),
이승자(사), 이준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의일(공), 홍승우(사회), 홍청일(약),

2025 - 2027 선출 이사: 28 명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연화(음), 김영준(문), 김용성(상), 김윤태(의), 김호범(상), 문병훈(사),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소진문(치),
신순천(원), 안인숙(간), 연경자(약), 이경미(미),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용락(공), 이정일(농), 장영수(공), 정호(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한경진(상), 한재은(의),

2026 - 2028 선출 이사: 26 명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영자(간), 김용환(공),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훈태(사회), 박영규(농), 박찬만(공), 백준철(공), 서상현(의), 신석균(문), 안창혁(사),
왕진환(공), 윤덕상(치), 윤봉수(간), 이진정(공), 이병주(상), 이영우(문), 이창호(공), 장윤일(공), 지우영(공), 홍하용(사), 홍혜례(사), 황찬주(인문), 황지룡(문),

2026 년도 임원진: 회장 이동균(공대 75), 수석부회장 윤봉수(간호 69), 부회장 이준수(공대 76), 황찬주(문 84), 총무 봉윤식(사회대 96) 재무 현준호(공대 85),
섭외/홍보 황찬주(인문대 84), News Letter 이준수(공대 76), 봉윤식(사회 96), Web Master 황찬주(인문대 84), 골프 소진문(치대 58), 김훈태(사회 84), 사진 소진문
(치대 58), 홍청일(약대 57), 특별간사 김수현(생활대 98) 이소정(음대 84), 김훈태(사회 84), 김수현(생활대 98), 감사 김영호(의대 71), 신순천(자연대학원 89)
동아리모임, 음악: 이영우(문리대 66), 스와재: 황찬주(인문대 84), 독서: 박종희(의대 69), 특별고문 정성일(공대 86), Golden Club 회장: 전현일(농대 62), 관악 클럽
회장: 황찬주(문리대 84), 장학금 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의일(공대 62), 고문 역대회장

2026 임원회/이사회/총회 행사		산하기관 및 동아리 행사
1 월	17 일(토) 11:00 ~ 인수인계 (Bank Account Transfer 포함)	- 골든클럽(전현일) - 관악클럽(황찬주) - 음악동우회(이영우) - 스와재 (황찬주) - 산행 (봉윤식) - 북클럽 (박종희)
2 월	14 일(토) 17:00 ~ 실행임원회의 22 일(일) 위임장(Proxy) 송부 (이사 위임장 및 회비)	
3 월	21 일(토) 12:15 ~ 1 차 이사회 - At Chandler (Schaumburg Golf)	
5 월	03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09 일(토) 12:00 ~ 춘계 골프대회 (Hilldale GC) (예약 완료)	
6 월	06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야유회 준비) 13 일(토) 11:30 ~ 야유회 - Busse Woods #4 (예약 완료) 26-29 일: 미주 총동창회 35 차 평의원 회의 - Radisson Blu Mall of America, Minneapolis, MN	
7 월	10 일(금) 장학생 선발 공시	시카고동창회홈페이지 
8 월	30 일(토) 장학생 접수 완료 16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9 월	05 일(토) 12:00 춘계 골프대회 (Hilldale GC) (예약 완료) 20 일(일)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 및 선발완료 27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2 차 이사회준비)	
10 월	25 일(일) 16:00 ~가을음악회 겸 2 차 이사회 (예약 완료) - 한인 문화원	신규 및 주소 변경 등록 
11 월	29 일(일) ~ 실행임원회의 (총회 준비)	
12 월	06 일(일) 16:00 ~ 총회 및 송년파티 - Chandler (Schaumburg Golf) (예약 완료)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6 년 이사회비 납부 (54 명)

곽영로(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자(간),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정주(문), 김학수(문), 김호범(상),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계영(의), 박 숙(의), 박연희(보),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소진문(치), 신순천(원), 안창혁(사), 왕진한(공), 유기정(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병주(상), 이성우(농), 이영우(문), 이종일(의), 이승자(사), 장윤일(공), 조대현(공), 지우영(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중행(의), 최길용(문), 한의일(공), 한경진(상), 한재은(의),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 황치룡(문), 홍청일(약)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6 년 동창회비 납부 (64 명)

곽영로(수), 구행서(공),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원(사), 김영자(간), 김영호(의), 김옥자(간),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정수(문), 김정주(문), 김학수(문), 김호범(상),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계영(의), 박 숙(의), 박연희(보), 박종희(의),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소진문(치), 신순천(원), 안창혁(사), 왕진한(공), 원인숙(간), 유기정(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병주(상), 이성우(농), 이영우(문), 이소정(음), 이종일(의), 이승자(사), 장기남(문), 장윤일(공), 조대현(공), 지예자(미), 지우영(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중행(의), 최길용(문), 한의일(공), 한경진(상), 한재은(의), 형준호(공),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 황치룡(문), 홍청일(약)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6 년 일반경비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2,400): 김동희(\$1,000), 김윤태(\$300), 한재은(\$100), 유기천 재단(\$1,000),

일반경비 지원 (\$8,000): 김동희(\$1,000), 윤봉수(\$300), 이건정(\$100), 장윤일 (\$2,000), 지우영(\$1,000), 정승규(\$500), 한의일(\$2,000),
한경진(\$1,000), 한재은(\$100)

2026 년 부고: 구경희 (의 59 E)